



L'ORÉAL에 임대된 FREGA 씨

L'ORÉAL THROUGH GILLETTE · 03

일요일 아침이면 Giorgio와 나는 자주 만났다. 친구이자 동료였고, 여성 화장품 분야에서 세계 최대 기업 가운데 하나인 L'ORÉAL의 영업 관리자였다.

그것은 우리가 가까이 지내는 방식이었다. 바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한 주와 일 이야기를 나누고, 시장에 있는 고객들 이야기를 하고, 그때그때 생긴 일을 두고 농담을 주고받았다.

그는 사교적인 성격이었다. 늘 웃고, 늘 아이러니했지만, 길들일 수 없는 정신을 지녔고, 건줄 데 없는 우아함과 세련됨이 있었다.

그는 언제나 농담을 준비하고 있었고, 결코 경솔한 농담은 아니었다. 모두를 편하게 해 주는 소문난 미소도 있었다. 그는 새 이를 해 넣느라 큰돈을 썼다고, 누군가 자기의 날카로운 농담을 좋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를 부러뜨리기로 마음먹을 위험에 대비해 25,000 유로짜리 보험을 들어야 했다고 말하길 좋아했다.

우리 지역인 칼라브리아를 함께 돌며 영업할 때면, 우리는 고객마다 큰 소리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남자들이라고 알렸다. 세계 최고의 두 회사에서 일하는데, 그 회사들이 일하라고가 아니라 즐기라고 큰돈을 준다고. 듣는 사람은 어김없이 짜증을 냈다. 사람들은 자주 우리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거의 모두에게 존중을 받았다.

4월의 어느 아침, 그가 내게 말했다. 다음 주에 데리러 갈게, 시칠리아로 일하러 가는 거야, 사흘. 걱정 마, 다 해결돼 있어, 너는 한 푼도 안 내.

그는 그곳이 내 담당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물었다. 도대체 담당 지역 밖에서 우리가 뭘 하는데?

글쎄, 그가 말했다. 그건 너한테 깜짝 선물이 될 거야. 어쩌면 나한테도 조금은.

너는 언제나 Gillette의 Frega겠지만, 사흘 동안은 L'ORÉAL의 비용으로 현장에 나온 회사 손님이 되는 거야.

동전의 다른 면을 보여 줄게. 네가 모르는 시장, 한 번도 본 적 없는 시장이지. 네가 그 안에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거기서는 모든 구매에서 여자들이 주인공이야. 그들만의 온갖 방식으로.

나한테는 고맙다고 말하는 방법이기도 해. 우리가 함께 보낸 2년에 대해서. 네가 없었다면, 너의 도움과 너의 기꺼운 마음, 너의 따뜻함과 너의 예의, 너를 지금의 남자이자 친구로 만드는 그 모든 것이 없었다면, 나는 크론병 이후에 아마 일터로 돌아오지 못했을 거야. 어쩌면 삶으로도.

그는 잠깐, 단 한순간 무너졌다. 눈물 한 방울. 그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는 모습을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는 우리가 카타니아에서 사흘, 팔레르모에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올 거라고 말했다. 그들은 이것을 공식 테스트로 다루고 있었고, 그의 영업 본부가 미리 승인하고 서명까지 했으며,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둘이 무슨 일을 벌일지 궁금해하고 있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좋다고 했다. 회사들은 늘 정보를 건네주었지만, 진짜 경험을 나누어 준 적은 없었다. 그리고 이것은 성장할 진짜 기회였다.

아버지께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너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일을 계속 벌이는구나. 그건 그냥 성격이 아니야, 그게 Ferdinando Frega야.

그것이 아버지가 축복을 내리는 방식이었다. 아버지는 Giorgio를 20년 동안 아셨고, 내가 무언가를 배우리라는 것을 아셨다. 다만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셨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내 얼굴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보고 무슨 일 이냐고 물었다. 나를 사흘 동안 L'Oréal에 빌려줬대, 내가 말하자 아내가 곧바로 받아쳤다. 여전히 장난꾸러기네. 대체 언제 철들 거 야?

돌아오는 날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말해 줄게, 나는 그렇게 말하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전부 들려주었다. 아내가 말했다. 이제 당신 큰 일 났다. 익숙한 문이 아닌 다른 문으로 여자들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잖아.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네.

Ferdinando